

전북도, 교육계와 협력사업 발굴 착수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설치 위한 1차 실무위원회 개최... 실무위원회 9명 참여·지방대학 위기 극복 방안 등 논의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8일 중회의실에서 전북도·도 교육청·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설치'를 위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에 지역 교육계와 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 나선 자리였다.

이번 실무회의는 지난 6월 도지사도 교육감 당선인간 협약과 7월 25일과 7월 26일의 도·교육청·지역 대학간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 협력 추진 체계 구축 협약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고교학점제 협력지원, △미래교육 기반조성 및 지역인재 양성 체계 구축, △전북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교육과제 해결 등을 담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도 3명, 교육청 3명, 대학 3명)으로 구성됐다. 전북교육협력추진단의 명칭, 위상, 성격, 역할, 조직 및 구성, 협력범위, 사업 발굴 및 추진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7월 28일부터 추진단 출범 시까지 운영된다.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설치의 우수 학생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발전에 힘쓰고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원적 구조를 하나로 통합해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실천한다.

지역교육 공동체인인 △교육행정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강화, △지역혁신을 위한 RIS사업 및 지역인재 투자협약 사업 추진, △학령인

구 급감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 극복, △무상 유아보육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및 농촌유학사업 활성화 등 도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해원 자치행정과장은 "인재 양성이 곧 전북의 미래이자 희망이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교육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전북도, 창의적 아이디어·제품·서비스 우수작 시상 공공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창업 촉진

전북도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2022년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전북디지털융합센터)와 도내 4개 대학(전북대 빅데이터혁신공유대학사업단, 원광대 SW중심대학사업단, 전주대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단, 군산대 국립대학육성사업추진단)이 공동 주관했다.

응모 부문은 △도전·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지난 4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접수했다.

공정성 있는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쳤다. 이에 최우수상(도지사상) 2건, 우수상(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상) 4건, 특별상(대학사업단장상) 5건 등 최종 11건을 선정했으며 총상금 1,250만 원을 시상했다.

도전·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 수상작은 우물증 라벨링 음성데이터 등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으로 노년기 우울증을 예방하는 '도담' 팀의 '노인 우울증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해결 방안'이 선정됐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AI hub 작물 질병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해 웹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작물 질병을 사전에 감지하고 진단하는 HELIFARM 팀의 '작물 질병 진단 시스템'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2팀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0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도는 본선 참가작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사전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군산에서 '제3회 섬의 날' 행사 개최

내달 8~14일 새만금컨벤션센터군산도 일원서 진행 K-POP공연, 드론·불꽃놀이, 버스킹, 국제학술대회 등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8월 8일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주관하는 '제3회 섬의 날' 행사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GO)와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섬, 대한민국을 떠우다'를 주제로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느껴보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지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섬의 매력에 풍덩 빠저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8일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를 시작으로 막을 여는 이번 행사는 K-POP과 트로트가 어우러진 신나는 축하공연과 어린이 그림대회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MBC M 특집 '쇼 챔피언', 방송인 박명수씨가 진행하는 G-Park 공연, '지방소멸시대, 지속 가능한 섬 발전전략'을 주제로한 국제학술대회 등이 8월 1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기간 중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주차문제를 해소할 위해 군산역사박물관~새만금컨벤션센터~선유도를 경유하는 셔틀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된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섬은 많은 분야에서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는 소중한 국가의 자원으로 인프라 확충 등 개발사업과 더불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섬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코로나 확산에 따라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서포터즈, 환경 보호 실천 캠페인 전개

군산 수송동 화재 현장서, 30여명의 서포터즈들 세계잼버리 성공기원 플로킹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는 담배꽂초가 화마를 불러일으킨 군산 수송동 화재 현장에서 '담배꽂초 버리지 않기' 범국민 환경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30여 명의 잼버리 서포터즈들은 무심코 '뱉' 던진 담배꽂초 화재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 화재 현장 주변에서 '담배꽂초 버리지 않기' 범국민 환경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세계 청소년들

의 꿈과 희망의 무대인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성공 기원을 한마음으로 응원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폐현수막으로 플로킹 쓰레기 봉투사용, 생수병 대신 물통, 화장지 대신 손수건을 환

용하는 등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는 환경 플로킹을 진행해 환경친화적인 잼버리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으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알리고 있는 하경희 서포터는 "담배 필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 위협과 환경 파괴의 주범임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강경오 서포터는 "도내 신시가지 먹자골목에 무단으로 버린 담배꽂초 투기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담배꽂초 버리지 않기' 환경 실천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수 이사장(약칭 잼버리범도민지원위원회)은 "이번 활동이 담배꽂초 화재의 심각성을 더욱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친환경적인 그린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여름 피서철을 맞아 도민 안전을 위해 도내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 참여한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남원시 산내면을 방문해 남원시와 합동으로 물놀이 안전시설·장비 정비 상태 및 안전관리요원 근무상태 등을 점검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사고가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물놀이 위험구역에 설치돼 있는 부표의 잦은 망실로 인한 물놀이 위험구역 접근 통제에 애로가 있다는 안전관리요원의 건의사항에 대해,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 범위에

부표가 포함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월 사전점검과 안전관리요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배치 전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교육했다. 또한,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지역에 대한 점검을 주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물놀이 관리지역 91개소, 위험구역 28개소 등 총 119개소를 지정해 물놀이 안전시설 3,232점을 설치하고 총 400여 명의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김경수 기자

2022년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원광대 2학기 군산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스피치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욱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주대인목사장
- 한스스피치·공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의제3대학원 및 기관, 단지 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나눔, MBC TV, JTV, LBN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사면네스트 · 송정리서사 · 심리상담사
- 게시 "665 스승 지혜유니캐이션", "나쁜 배운, 보, 보" "스피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우석대학교(주, 야간)
원광대학교(주, 야간)	군산대학교(주, 야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음주, 야간)	남원스피치(야간)
김계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미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8월 29일까지
- 개강: 9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강료: 15만원
- 분의: 010-8448-2570
- 전담교수: 문정태(미술지도사, 치매인지능력회회 전주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